A group of four young people are leaning out of a train window, smiling and making peace signs. The train is moving along tracks, and the background shows a blurred landscape. The text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11기 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임휘업

권한마로

임이경

강애리

목차

- ▷ 01. 프로그램 현재 상황
- ▷ 02. 350ppm
- ▷ 03. 중간평가
- ▷ 04. 두번째 여행 *in Jaffna*
- ▷ 05. 개인소감
- ▷ 06. 7월 여담

프로그램 현재상황



아띠 스쿨

11기 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월요일과 수요일은 영어수업, 화요일은 태권 무 수업, 목요일은 예체능 수업이다. 영어수업은 변함없이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태권 무 수업은 태권무 동작이 모두 끝이 났지만,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서 수준별로 학생들을 나눠, 개인지도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음악에 맞춰 동작을 외우도록 연습을 하고 있다.

6월의 예체능 수업은 350ppm 캠페인 주간을 맞아 350과 관련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이부분은 350ppm에 있어요!)



오늘의 영어수업은 헵맨게임! 아이들 스스로 문제내고 맞추느라 아띠들이 참 편했다는 소문이..



태권무 개인 연습시간. 태권무 동작을 완벽히 마스터한 두산덴(오른쪽)이 로젠(왼쪽)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



예체능 수업으로 닭싸움. 팀별 대항전에서 누가 이겼을까?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칠드런클럽은 평균 13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6월달에 350 캠페인주간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350캠페인을 진행했다. 보통 아피스쿨에 오는 아이들이 칠드런클럽에도 속해 있어, 이번달에는 유동적으로 아피스쿨 시간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YMCA의 멋진 벽에 아이들의 그림으로 채워 넣을 예정이다. 벽화준비는 아이들과 함께 하였다.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안도 직접 그릴 예정이다.



마인드맵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뽑아내, 그 중에 거수로 5가지를 정하였다.



350화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도서관 프로젝트

11기 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6월초, 페리아 칼라 5개의 학교에서 **도서추천 목록**을 받았다. 이 도서 목록은 앞으로 도서 구입 시 참고가 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월달에 도서관에 큰 변화가 생겼다. 4월 달에 휘업단원의 지인 중 한명이 인도에서 교환학생중인데, 우리의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릴라이버리’ 프로젝트**로 모금활동을 진행해왔었다. 릴라이버리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 각지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소중한 돈이 모아졌고, 드디어 6월 8일 ‘배동주’씨가 인도에서 산 타밀어 책을 한아름 들고 페리아 칼라를 방문을 하였다. 기부받은 도서는 총 101권으로 타밀어책+영어책이었다. 새로운 도서를 바탕으로 도서관 멤버십정리에 박차를 가하였다. 도서관 멤버십 가입신청서, 도서 카드, 도서대출지, 칼라도서관 도장까지 구비를 마쳤으며, 7월 중순까지 도서관 시스템정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배동주씨 칼라에서 떠나는 날.



책이 이렇게나 많이 왔어요😊



책을 정리하는 사서 셀비



350PPM

근본 원인

1. 인식의 문제

-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부족
- 우리동네라는 소속감의 부재와 이기심의 팽배
-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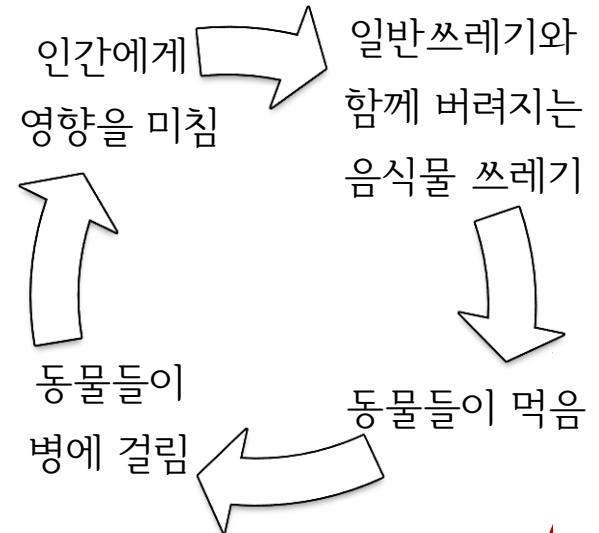
목표

1. 인식의 변화- 소속감 생기기

내 집과 내 땅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칼라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소속감이 생기기를 바란다.

- ### 2. 음식물쓰레기의 비료화를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인식

2. 음식물쓰레기 문제



1. 게릴라 가드닝

- ### 2.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만들기

350P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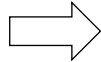
11기 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우리는 2달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2가지의 큰 프로젝트를(게릴라 가드닝, 음식물쓰레기로 비료 만들기) 계획했고 아띠 스쿨과, 칠드런 클럽 시간에도 350ppm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아띠스쿨, 칠드런클럽 아이들과 함께한 350PPM 보시죠~



저기 우리 애리단원이 350PPM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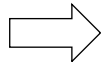


설명이 끝나고, 게임을 통해 게릴라 가드닝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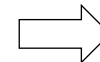
이 게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팀 게임으로, 림보를 성공하면 비닐주머니에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 팀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게임.
하지만 게임이 진행 될수록 림보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사실.



이렇게 허리를 팍!! 꺾어서 성공하면



쓰레기를 하나 주워서



쓰레기 통으로.

350PPM

11기 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그리고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게임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1. 비닐주머니에는 페리아 칼라의 지도가 그려져 있어서 페리아 칼라의 쓰레기를 줍는걸 의미한다.
2. 비닐 주머니 뒷편엔 이쁜 꽃밭이 그려져 있어서 쓰레기를 힘을 모아 함께 주워 내 손으로 아름다운 꽃을 마을에 심자는 걸 의미한다.
3. 그리고 림보의 난이도를 높여, 아이들의 협동심을 유발한 아주 치밀하고 심오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소오오오름)



마지막으로 게임의 의미를 설명하고 마무리.



350PPM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아직 끝나지 않은 아이들과의 350PPM- 두번째



350 화분
만들기

350PPM

11기 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아직 끝나지 않은 아이들과의 350PPM- 세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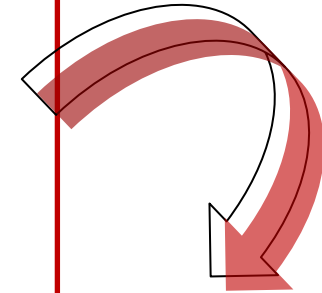


칼라 YMCA를
깨끗이 청소하고
빈 화분에 꽃을
꾸밈(심고)
우땀(물을 주고)

YMCA
환경정리

본격적인 우리의 프로젝트 - ① 게릴라 가드닝 준비단계

- STEP 1 • 장소 섭외: 공공 운동장, 병원
장소를 공공 용지로 섭외한 이유가 지속적인 관리 때문이다. 공공운동장은 지금 현재 운동장 주변 아이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병원도 관리부분을 약속 받았다.
- STEP 2 • 단체 섭외: 페리야 칼라 스포츠 클럽, YMHA, CENTRAL COLLAGE, KUGA, 병원 등
- STEP 3 • 꽃 구입 및 기부받기



1차 실행단계

- 병원 (• 당일 가보니, 땅 밑의 수많은 돌무더기는 쓰나미로 인해 무너진 담벼락, 벽돌이 매장 된 상태였다. 이대로 꽃을 심기는 불가능했다.
• 트랙터 없이 치우는 건 무리로 판단되어, 땅 위 쓰레기만 치우고 애초에 계획했던 돌무더기를 치우는 건 미뤄졌다.
- 공공 운동장 • 단체들을 섭외를 했지만, 실제로 참여를 한 단체는 센트럴컬리지 뿐이었다. 남은 쓰레기는 오전시간을 이용해 우리가 치웠다.

본격적인 우리의 프로젝트 - ① 게릴라 가드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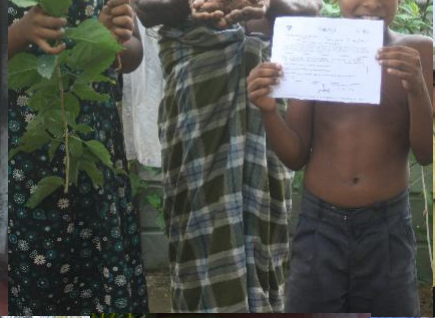
2차 실행단계

병원

- 중간평가 다음날, 트랙터를 빌려 병원 사람들과 함께 돌무더기를 깨끗이 치웠다.
- 병원의 돌무더기는 강둑을 쌓는데 돌이 필요한 코빌로 옮겨졌다.
- 돌무더기를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메꾸기 위해 모래를 부었다. 마지막으로 땅을 다듬어, 가드닝을 하고 소가 잎을 먹는걸 방지하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7월 둘째 주 계획)

공공 운동장

- 처음의 계획이었던 스포츠클럽과의 게릴라 가드닝이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우리자체로도 사람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음에 믿음을 갖고 꾸준히 청소를 하였다,
-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꽃 심기가 시작 될 무렵, 운동장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하나 둘 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이 손을 하나씩 건너 부치고 우리를 도와,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배웠다.) 꽃이 운동장에 한 송이 씩 피어날 수 있었다.



Flower Donators







취진
뒷모습의
그때와
힘내길



천사 같은 아이들의
도움의 손길이 뻗치자....



삼질을 멈출수가 없어!!!!!!!!!!!!!!!!!!!! 힘 이 쏟아나!!!!!!!!!!!!!!

↓ 버려진 변기를 이용해 만든 350 화분



어린이들과 함께한
게릴라 가드닝
- 공공 운동장 finish 😊

본격적인 우리의 프로젝트 - ② 음식물쓰레기로 비료 만들기 준비단계

- STEP 1 아이디어는 어디서? 음식을 할 때 마다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를 고민 + 이미 시도 중인 옆집 아저씨 쿠말네 집
- STEP 2 통은 어디에서? 우연히 마르다무네의 한 청년에게 무료로 3개를 얻었고 전 기수들이 이용했던 철물점에서 통을 원가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STEP 3 표본 제작! 우리 옆집 바산디 엄마네 1, 우리집 1 설치를 해 시범 운영을 함. → 비료화 성공
추가로 달걀 껍질과 설탕을 넣고 만든 효소도 성공.
- STEP 4 설명회 개최 칼라의 한 여성단체의 회장이자 라온아띠 커미티 멤버인 아난디 엄마의 도움으로 우선 여성단체 위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계획.

본격적인 우리의 프로젝트 - ② 음식물쓰레기로 비료 만들기 실행단계

그러나. 우리의 타겟 층인 여성단체들이 한 곳을 제외하고 현재 활동이 미미한 상태였다. 아난디 엄마의 여성단체도 미팅 날짜가 미뤄지는 바람에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음식물로 비료 만드는 방법이 담긴 설명서 번역도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 진전이 되지 않았다.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져서 계획했던 설명회 일정이 취소 되었다.

→ 그래서 우선 지인들의 집에 설치를 독려를 하고 희망하는 분들은 비료 만드는 자료와 함께 설치도 도와 주고 있다. 칼라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앞마당에 과실 열매들을 심어 키우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 7월 말까지 10가구를 목표로 홍보를 할 예정이며, 우리가 칼라가 떠난 뒤에도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맡아 줄 여성단체나 사람을 찾고 있다.



이곳은 저희 집 옆마당 비료 통이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청소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좋네요.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만들기

가드닝 할 때 꽃에 비료를 투척~ 쑥쑥 자라라~

마로

너무 성급했다. 동화 간사님 말을 빌리자면 겁도 없었다. 사람을 모으고 움직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도전하고 산산이 깨졌다. 그리고 가드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운동장의 실질적인 주인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아이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해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자체가 미안하고 고맙기까지 했다. 우리가 찾지 못한 대안도 (소를 막을 울타리를 돈 안들이고 설치하는)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배운 것 같다.

이경

단순히 쉬운 줄만 알았던 350캠페인. 왜 우리는 쉬운 길을 두고 힘든 길을 가려고 했을까. 쉽게 쉽게 깊은 고민 없이 헤치워 버리고 싶었다. 그 결과로 스포츠클럽과의 첫 가드닝이 실패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왜 왜.왜?

나는 스포츠 클럽회원들을 팀 과제 하듯이 일로써 다가가 버렸다. 우리의 관계는 일이 끝나면 그걸로 끝인 관계. 이제는 연락하기 민망한 관계가 되 버렸다. 핑계 거리라면 하나씩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이 도와줘서 끝내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보다 손끝이 야무져 보통의 내공이 아닌 아이들을 보니 한없이 부끄럽긴 마찬가지였다.

중간평가 개인면담을 통해 마을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고심했다. 특히 소속감의 부재가 문제인 마을이 아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동기부여: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도중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팀 운동이 제격이겠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미스쿨 이후 시간을 이용해 해변 옆 운동장에서 공차기를 했던 것이 하나 둘 아이들이 붙어나기 시작했다. 처음 4명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최대 25명에 이르며 꽤 고정적인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축구 경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인원이 늘어났으며, 얼마 전부터 좀 더 높은 연령대의 학생들도 함께 하게 되었다.)아이들과 매일 같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장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드닝에 관심을 보였다. 어떤 아이는 우리와 함께 소가 꽃을 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고, 어떤 이는 매일 아침 6시에 집 앞에 심겨진 화단에 물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런 일들을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 전단지를 만들어 각 스포츠클럽에 배포하고 힌두사원을 이용해 방송하는 것이 중간평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다.

나의 변화: 중간평가 이전의 나는 가드닝에서 꽃은 마치 농약도 뿌려주고, 영양제도 충분히 준 멋진 화원이 되기를 기대했다. 덤프사이트를 일년 내내 꽃으로 뒤덮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큰 화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자발적으로 충원되지 못하자 나를 되돌아보기 보단 주민들을 욕했다. 중간평가 이후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면서 페리아칼라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었다. 멋진 해변을 끼고 붉게 물든 석양 아래 있는 페리아칼라 마을은 나무 한 그루조차 자연과 어우러진 느낌을 받았다. 화원과 같이 온갖 화려한 꽃망울이 드리워 있는 모습은 어쩐지 이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지금의 나는 우리가 잘 기른 꽃들이 들판의 꽃이 되었으면 한다. 잡초에 뒤섞여 혹시나 그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지만 우연히 보게 된 꽃송이에 감동하는 것 그것 또한 괜찮을 것 같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조바심을 느끼지 말고 페리아칼라 지역주민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나의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 명의 페리아칼라 사람의 마음속에 꽃송이가 드리워질 수 있도록 욕심을 내려 놓도록 하겠다.

350PPM - 고민거리 대방출(애리편)

우리의 350PP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초부터 한 주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두 달여 기간을 캠페인 기간으로 잡았다.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350PPM에 대한 나의 접근법은 어땠는지 고민해보게 되었다.

‘처음 - 목소리 높이기’

350PPM에 대한 본격적인 회의는 5월 초부터 진행되었다.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혼란스러웠다. 1) 탄소배출량도 우리나라의 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이 캠페인이 어떻게 와 닿을까 2) 350PPM 캠페인도 결국 환경 캠페인이니깐 그냥 크게 확대시켜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할까 3) 작년 11월의 UNFCCC회의장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느꼈나 4)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캠페인을 벌여야 하나 등등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고민만 있을 뿐, 답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이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서부터 시작되어 자료를 찾았다. UNFCCC COP19 CMP9의 스리랑카가 포함된 LMDC의 제안서부터 UN의 통계자료, 그리고 스리랑카 환경부가 정리한 자료까지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았다.

결국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에는 이런 자료들이 얼마 쓰이지는 않았지만, 나 스스로 350PPM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스리랑카와 같은 나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목소리가 작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나라 사람들이 이 문제에 조금 더 볼륨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간 -결국 사람’

350PPM 캠페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동시에 위로 받았다. 우리가 기획한 게릴라 가드닝의 경우,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의 양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외면했다. 전화로, 편지로, 그리고 면대면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가치는 별로 공감을 얻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동참으로 가치를 공유하고자 했던 우리의 계획은 ‘일단 우리끼리라도 질러보자’, ‘누군가는 알아주겠지’로 방향을 조정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성공적이라 본다. 심지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와 약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무리일지라도, 길거리 청소를 하던 처음에는 3명이, 그리고 꽃을 심는 지금은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 실망했던 것도 잠시, 약속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여 우리에게 와준 것이다. 감사했다. 350PPM의 그 의미를 떠나, 결국 모든 것은 사람간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THE AND’

계속해서 언급했듯, 우리의 350PPM은 진행 중이다. 기부 받은 꽃과 구매한 꽃들을 요즘 마을 곳곳에 심고 있다. 우리가 쓰레기를 치운 곳에 여전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공 운동장 주변의 아이들이 꽃을 심고 물을 주는 것에 열성적이라 다행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안가 집들의 아이들인데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다. 왜 진작에 해안가에서 무언가를 해보지 않았을까 후회될 정도로.

음식물쓰레기의 비료화의 경우, 쓰나미 이후 와해되어 몇 남지 않은 지역여성단체들과 무언가를 해보려 했는데, 아직 단체들의 기반이 약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실험적으로 설치한 비료통에서 사실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관심있어하는 몇몇 지인들에게 비료화 방법 등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애초부터 음식물쓰레기 비료화의 경우 10가정만 설치해도 만족할거라 개인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별로 비관적이지 않다.

중

간

평

가



중간평가

11기 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잠정 연기 되었던 중간평가가 6월 14일~17일로 정해졌다. 한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활동을 다시 돌아보고, 피드백 받을 좋은 기회였다. 특별히 우리팀의 중간평가는 동티모르의 양동화 간사님과 모라투아에서 활동 중인 이성희, 강정진 단원이 왔고 아띠 들의 집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발표는 그 동안 같고 닦았던 쿠말 선생님의 영어프레젠테이션 강의의 실전 연습의 기회로, 4명 모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이 떨리는 자리였지만, 무사히 발표를 마쳤다. 저녁에는 모두 모여 여자단원들은 한복을 입고, 부침개를 만들어가,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중간평가를 마무리 했다.



즐거보자 중간평가 - 15일(파시쿠다)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첫 아침식사로 10시간이상 폭 고아 살이 야들 야들하게 찢어지는 닭백숙!



점심을 맛있게 먹은 뒤,
개인면담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도착

여기가 파.시.쿠.다.

한시간 버스타고
바티칼로아로 가서,
빌라체네까지 한시간,
프리윌타고 15분...
간사님
사랑합니다♡

중간평가 - 16일(중간평가)

11기 스리랑카팀의
6개월 보고서



중간평가는 촛대에 불을 켜는 스리랑카 문화를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상생활(마로)- 현재프로그램(이경)-미래 계획(휘업)-질의 응답(애리) 순서로 진행되었고, 간단한 티타임후, 개인 소감과 피드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간평가 뒤에는 칼라Y의 아티스쿨과 어린이 도서관에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평가- 느낌점

4개월 동안 많은 생각과 고민들에 마주했는데, 항상 마음이 답답할 때면 낙서처럼 막 적어 공책에 묵혀두고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다. 복잡다단하여 감히 그것을 꺼내어 풀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중간평가는 그 뭉쳐져 엉켜버린 실타래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고, 양동화 간사님께서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정의 내릴 수 있게 도와주셨다. 이전과 달리 조금은 정리가 된 기분이다. - 강애리-

너무 늦어진 일정, 낯선 사람의 방문에 처음에는 필요성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 놓을 수 있는 힐링의 장이었다. 평가라는 말 보다는 힐링. 상담을 통해 방향도 제대로 다 잡을 수 있었다. -권한마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축 쳐져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졌다고 했다. 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중간평가인 것 같다. 중간평가는 나에게 자신감 회복의 기회가 되었다. 간사님께 털어놓으면서, 간사님께 혼도 나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간평가 동안 한집에서 지내면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커피와 자기 전에 했던 카드게임.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편하게 지내주신 세분덕분에 같이 동화 될 수 있어서 고마웠던, 잊지 못할 중간평가가 되었다. -임이경-



자프나 여행

두번째 여행 - 자프나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첫째 날



여행 날 아침은 애리 생일이였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미역국과 옆집 쿠말아저씨와 아들 제레마야와 딸 레나테의 깜짝 파티로 훈훈한 여행의 시작을 알렸다. 레나테가 직접 적었다는 “생일 축하해“.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하다.



첫번째 목적지 Kinnya Hot water wells

역사적으로 Kink Ravana 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Kink Ravana가 그의 검으로 땅을 찢어서 생긴 구멍들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hot water well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Hot water well 주변에 힌두사원이었던 터를 볼 수 있는데 전쟁 기간 때 싱할라가 무너뜨리고 지금의 불교사원을 지었다고 한다. 전쟁의 피해로 주변의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파괴되었다.

두번째 여행 - 자프나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Koneswaram temple of Trincomalee



시바신을 섬기는 힌두 사원이다. 스와미 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높아 트린코말리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이 사원은 특징적으로 꼭대기에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를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두 사원으로 이어져 있다. Dravidian 시대(17세기 초)에 세워져 현존하고 영향력 있는 사원으로 꼽힌다.



Nilavali beach & Pigeon Island



전쟁이 끝난 후, 많은 관광객들이 트린코말리와 nilavali 해변을 찾고 있다. 새로운 길들과 해변가를 따라 세워진 새로운 호텔 때문에 예전보다는 아름답지는 않지만, 스리랑카의 여러 해변들 중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그곳의 유명한 pigeon island에도 둘러 볼 기회가 생겼다. 15분 정도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해, 다양한 해양생물을 볼 수가 있었다.

두번째 여행 - 자프나

11기 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둘째 날

Pointpetro YMCA



Pointpetro YMCA를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과 자프나의 중요한 장소,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설명을 들었다. 설명이 끝난 뒤 YMCA 안의 직업훈련소도 둘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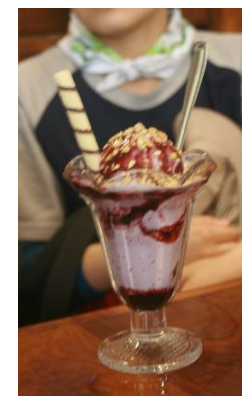
Rio Icecream

자프나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Icecream.
강력추천!

Dutch Fort



네덜란드가 식민 지배했을 당시 지어졌다. 전쟁 때 모두 부서져 지금은 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두번째 여행 - 자프나

11기斯里랑카팀의
6개월 보고서



Nallur Murgan Temple: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힌두 사원. 내부사진은 찍을 수 없고, 남자는 반드시 상의를 탈의를 해야한다.



Jaffna Public Library: 1933년에 한 개인 수집가로부터 시작된 이 도서관은 점차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의 형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도서관은 야자수 앞에 쓰여진 기록, 100년 전 자프나의 정치적인 상황이 적혀있는 신문 등 다양한 역사적인 자료들의 저장소이다.

Pointpetro YMCA sports program
Pointpetro 지역에서 운영중인 스포츠 프로그램에 방문해 네트볼과 축구를 했다..함께 운동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두번째 여행 - 자프나

11기 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셋째 날



Jaffna Archeological Museum: 네덜란드 치하와 7,8세기 힌두 군왕 시대의 전시물들이 있는 자프나 박물관에 방문했다. 관장님의 빠른 설명으로 우리는 멜레멜레(천천히)를 계속 외쳤지만, 꼼꼼히 재미있게 관람을 마쳤다. 실제로 민속박물관 같은 느낌이 나 정감이 넘쳤다.



Mullattivu/Kilinochchi:

전쟁을 경험했던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전쟁박물관과 전쟁에 영향 받았던 장소, 사람들을 만나며 전쟁상황 전쟁 전/후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두번째 여행

개인소감 대방출(마로편, 이경편)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기대 하지 않았던 여행. 그래서 반전의 여행. 모든 것이 폐허라는 말과 달리 엄청 큰 도시. 아름다운 도서관과 재미있는 박물관. 그 주변 도시에서는 전쟁의 아픔을 묻어 둔 채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정당하지 못한, 치졸한 모습(개인적인 느낌)까지 볼 수 있었다. -마로-

자프나로 가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창밖의 풍경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청량한 바다가 보이다가도 도로 곳곳의 전쟁의 상처가 미처 잊혀지지 않은 채 있었다. 여행이지만, 차분해졌다. 전쟁 박물관에는 전쟁 때 타밀군 들이 철도를 녹여 만들었다는 무기와 잠수함들이 있었고, 상상했던 것 보다 이상으로 치열했고, 갈등의 깊이를 무기들을 보며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무거웠던 마음은 자프나YMCA의 스포츠클럽과 만나며 희망으로 변했다. 남자들만 있을거란 기대와는 달리 어린 여자친구들이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신나게 운동을 하고 있었다. 크리켓만 좋아하는 스리랑카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는, 협동심이 중요한 농구와 축구 등의 스포츠를 즐겨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을 서로 마주보며 뜻밖의 만남을 환영했다. 그리고 곧장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흙먼지를 풍기며 달려갔다. 아직 아물지 않은 나의 발 상처는 중요하지 않은 듯 했다. 얇은 나의 발바닥으로 그 친구들을 따라잡기 어려웠지만, 마음껏 달리고 공을 차면서 마음이 상쾌해졌다. 승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서로 칭찬하느라 바빴다. 서로 짧은 만남으로 아쉬워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서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 만남이 고마웠다. -이경-

두번째 여행 개인소감 대방출 (취업편)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자프나 느낌: 바띠칼로아가 무슬림 문화에 의해 형성된 도시라면 자프나는 타밀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힌두문화의 도시형태라는 느낌을 받았다. 내전의 격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프나는 과거 수도의 위상을 되찾기라도 하듯 이미 말끔히 리빌딩된 느낌이다. 도시 군데 군데에서 내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파괴된 건물들이 보이지만, 이 역시도 리오(스리랑카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가게), 모든 것이 완벽했던 자프나도서관, 푸드시티(스리랑카 대형체인점 마트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컸다.)등을 보면서 내전의 아픔은 잊혀져 버린 과거가 된 듯했다. 사람들은 현대식 건물에서 에어컨바람을 쐬고, 무더위가 한풀 꺾일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여유롭게 힌두사원을 방문한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내게는 거북스러웠다. 이미 신 자유주의 풍토로 돈의 흐름에서 행복을 찾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보통 식사가격에 2배가격임에도 맛도 없는 유명 페스트푸드를 즐기는 사람이며 무너진 건물들을 관광상품화 하려는 모습에서 한때 타밀의 자유를 갈구하던 LTTE의 정신이 꽤나 모순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나 마지막 격전지였던 옆 동네 몰라티부에서는 식수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자질구래 한 상처에 병원 한번 갈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 여행 개인소감 대방출 (취업편)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승자의 독식: 내전 발발 여하가 어찌 됐든 스리랑카 국민 모두가 가슴 한 켠에 틀어 박힌 상처 하나쯤은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싱갈라와 타밀이라는 이분법적 계급구조는 삶 전체에서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었다. 이번 자프나 Excursion은 자꾸만 나를 먹먹하게 만든 건 어째서일까. 그것은 건물을 통째로 날려 버린 포탄 자국에서 오는 공포라기 보다 승자의 독식에서 오는 철저한 소외의 무서움이기 때문이다. 타밀지역임에도 싱갈라 언어가 상단을 차지하고(심지어 타밀어가 써 있지 않은 문구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타밀지역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반항을 이미 테러리즘으로 규정해 버렸다.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싱갈라 언어를 공부한다. 정부의 중앙정책과 개인의 사적 이익이 맞물리면서 타밀은 빛을 잃어 가고 있다. 즉 타밀은 패배와 함께 역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낯설어 보인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자의 오만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이미 남한사회에서 정착하고 있는 2만5천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차별을 받고 있다. 나 역시도 북한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남한 위주의 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다. 60여년이라는 세월을 까마득히 잊은 체 차별은 응당한 대가라고 멋진 말로 포장해 왔던 것이다. 통일이라는 수단을 통해 값이 아닌 을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두번째 여행 개인소감 대방출 (애리편)

11기斯里랑카팀의

6월 보고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논리로 한쪽을 지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찮은 일인지 실감하는 여행이었다.斯里랑카에 오기 전, 나 또한 LTTE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었다. 여행에서 마주했던 현실은 사뭇 달랐다. 마지막 격전지인 킬리노치와 말라티부에 사는 타밀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군인들을 마주하고 있었고, 자신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이주되어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LTTE가 사용했다던 무기를 전시하는 박물관에서는 싱할라어 설명만 있을 뿐, 타밀어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고, 여전히 타밀사람들은 싱할라어를 익혀야 보다 나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斯里랑카의 지난 26여년간의 전쟁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斯里랑카 사람들만의 문제로 남길 수 있는지, 어느 사회에서나 소수와 다수의 대립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의 조화는 생겨날 수 없는지, 그리고 반군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등 의문이 들었다. 나는 싱할라 사람들과 타밀 사람들 둘 중에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다. 여행을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감정적으로는 타밀 사람들의 편에 서고 싶지만,斯里랑카에 애정을 가진 한 외국인으로서 어쭙잖은 편들기보다 철저한 제 3자가 되고 싶을 뿐이다.



6월 에세이

6월 에세이 - 취업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내 자신에게 미안하다. 나를 위해 솔직하게, 당당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에 속앓이 했을 나에게 고백한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미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그 동안 가슴 안에만 담아둔 것들. 그러나 담을수록 공허해진다.



6월 에세이 - 마로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그 동안 너무 자만했던 것 같다. 중간 평가를 통해 느낀 거지만 과한 의욕 덕분(?) 너무 큰 이상이 집착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에 어깨가 으쓱했는지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하자고 하면 쉽게 모일 줄 알았다. 안되면 안 되는 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기다리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흐름에 맡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엄청난(?) 결과를 내려고 했었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다. 우리는 프로가 아니라 배우는 입장인데 말이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걸음마를 배우듯 했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은 척 애썼다.

이런 마음의 짐을 중간평가 이후로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것이 한결 가벼워졌다. 팀 분위기도 그렇고 활동 자체도 즐기게 되었다. 이 자체도 크게 배운 것 같다. 초심을 잃지 말자 다짐 했지만 그 초심이 뭔지조차 제대로 몰랐던 것 같고 자존감도 잃고 살았던 모습조차 말이다.



6월 에세이 - 마로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분명 배우러 이 곳에 왔지만 배우는 사람으로써의 배움의 자세가 안되어 있었다. 그래서 배움에 관해 든 생각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우리 모두는 다르다. 다름 속에서 배워야 한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배우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는 완벽하다' 라는 생각인 것 같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럼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이 분명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색안경을 끼고 무의식 속 완벽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다. 분명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말이다. 어떤 사람은 A라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B라는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혹은 멍청하다고 나누는 것은 불가능 하다. 결국 사람은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메워야 한다. 퍼즐 같이 말이다. 결국 나는 여기에서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모르던 자신감 때문인지 득의양양 해져서 그 다름을 받아드리고 배울 준비가 안되어 있던 것 같다. 국내 교육 때부터 강조되었던, 그 전에 어딘가에서부터 들어왔던 다름을 이해하라는 그 말을 듣고 흘려 보냈던 것 인지 잠시 잊고 살았었다. 같으면서 다른 사람들 틈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말이다.

6월 에세이 - 애리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처하는 곳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라
서있는 곳이 모두 진실이리니

- 임제, 조선중기 시인 겸 문신-

마지막 남은 한 달까지도 랑카 팀 파이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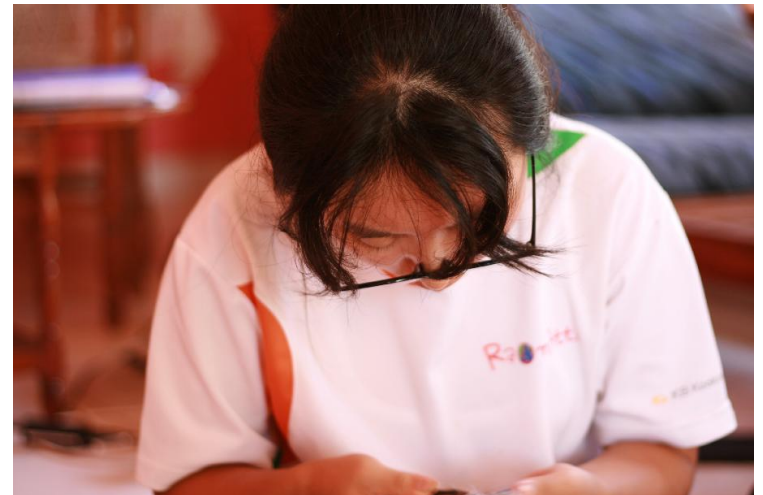
6월 에세이 - 이경

11기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6월이 어땠냐고 물어보면 내가 답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담아서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좋았다. 좋은 일이 많아서 좋은게 아니라 다 지나고 보니 힘든 것도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괜찮고, 낮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기분 안좋은 걸 본 현지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왜 오늘 기분이 안 좋냐고 물어봐 줘서 좋고, 타밀어로 이젠 설명이 가능해서 좋았고, 설명하다가 또 북받쳐서 친구 앞에서 울다가 웃어서 좋았고, 오늘 만든 커리가 맛있어서 좋고 그냥 이것저것 좋다.

그냥 좋으니까 좋다. 하하하



The Heritage Café



6월 여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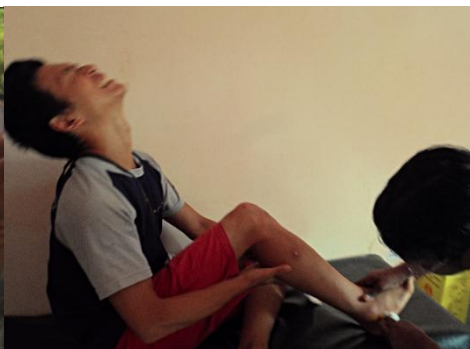
11기 스리랑카팀의 6개월 보고서

차례대로

1. 자프나 지역에서 온 학생들과 배구 경기 중.
2. 코빌 축제 중 춤추는 소녀
3. 양동화 간사님과 마지막 밤
4. 콜롬보에서 벤토타가는 기차에서



5. 피존 아일랜드 가는 배 안에서
6. 사서 셸비와 락시
7. 자프나 여행에서 모두 함께 병원으로
8. 새로운 가족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11기 스리랑카팀의
6월 보고서

Donated by

박인국

강민찬

김용일

좋은 책 사주세요

멋진놈

문사동

수고한다얼른보자

하은지

%

김규호

추유나

장원석

문지현

김종래

윤민찬

전병진

맘시마저고운씨니

민승민

김희주

정참

박인국

노아란부디많이

그리고 배동주

좋은 책 사주세요

01031291836

모두 감사합니다☺



신이 권한마로를 만들때

신이 강애리를 만들때

일단 각설탕 한 스푼

현지 적응력 한 스푼

23살인데 팔자주름 한 스푼

태양을 피하는 방법 한 스푼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연락해야 하니까

으아아아악

팔자주름은 너무했군

으아아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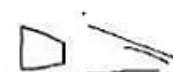
페이스북도 조금..

대신 팔뚝살은 조금...

미간이라도 조금...

으아아아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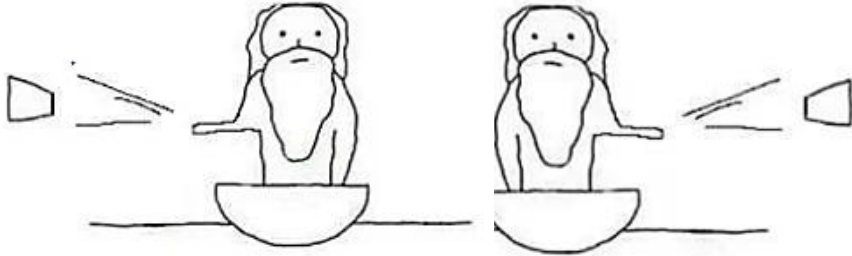
음식 할 때 간은...



신이 임취업을 만들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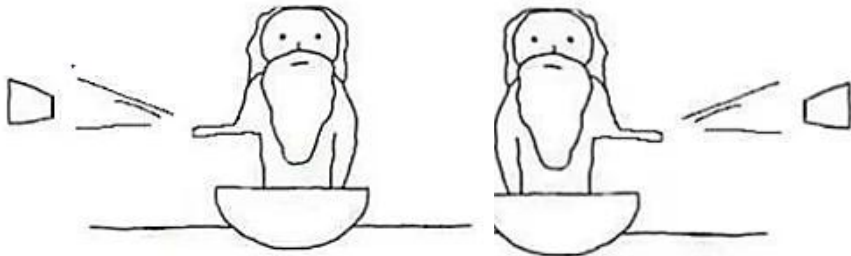
해피무브는 인연이 아니야

해피무브는 인연이 아니야



해피무브는 인연이 아니야

해피무브는 인연이 아니야



이거였나? ?

한번
해피무브
기회를 줄까?

잘다녀와라라
라라라라

라온아띠 ←



해피무브



신이 임이경을 만들때

남친 복 한스폰

홍삼기운 한스폰



너무 완벽하니까
약간 돌아이기질

조금...

으아아아악



감수성은 조금만...

으아아아아아

... 이런!



에헤라디아...



감사합니다

